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021. 05. 06.(목) 11: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윤종호	1.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은? 2. 옥계동 임시야적장에서 가지고 온 약 4만여 톤의 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3. 2차례의 화재로 타지 않은 채 유실되어, 소각 가능했으나 매립처리된 3만여 톤의 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4. 소각장 추가 증설을 위해 5년여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배출 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 인가? 5. 화재로 인한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구미시의 처분 계획은 무엇인가? (민간 쓰레기 처리 업체의 경우와 대비하여)	시 장 (도시환경국장) ” ” ” ”	

질문

1.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평소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시는 화재예방, 초동대응 강화, 매립장 내 보관폐기물처리
3단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이 보관된 매립장 주변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근무자가 배치된 곳에 감시모니터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야간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매시간 순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자에게 일일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동대응매뉴얼을 개선하였습니다.

○ 둘째,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매립시설 부지 주변으로 80톤 규모의 소화용수 저수조와
매립시설 중심부까지

소화용수가 도달 할 수 있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환경자원화시설까지의 소방출동거리를 감안하여 시설과 연접해 있는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구미119화학구조센터와 화재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관내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 Display 구미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환경안전팀과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화재발생 시
긴급 지원 요청이 가능한
자원화시설 소방대응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내 보관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 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압축배일을 제외한 매립장 내 보관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편성 시까지 예비비를 투입하여
보관생활폐기물 구획을 나누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2. 옥계동 임시야적장에서 가지고 온 약 4만여 톤의 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 2007년 구포매립장이 종료된 이후부터 환경자원화시설이 가동 개시되기까지 3년간 발생한 생활폐기물 9만여 톤을 환경자원화시설로 이송하여 매년 처리하여 왔으나, 2016년도 이후 반입폐기물 양이 급증하여 당초 계획대로 소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축베일 처리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원순환형 매립 후 소각시설 증설 시에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 소각시설에 소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압축베일을 소각하기 위한 1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을 통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차단한 후에 소각장이 증설되면 소각하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2차례의 화재로 타지 않은 채 유실되어, 소각 가능했으나 매립처리 된 3만여 톤의 쓰레기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 화재 발생 당시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가연성 폐기물은 화재 방지 차원에서 긴급 매립 조치하였으며, 현재로서는 매립하는 것이 화재가 재발되지 않는 대책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소각시설 증설 이후에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당초 우리시는 55년 규모의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35년 간 사용 예정으로 1,142천m³의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재 조성된 부지의 20%정도가 소진되었고 압축베일을 매립할 경우 최대 25% 정도의 매립용량이 소진될 것으로 산정은 되나, 추후 소각시설 증설 후 매립한 가연성 폐기물을 다시 파내어 소각하게 된다면 매립용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 소각장 추가 증설을 위해서 5년여의 시일이 소요 되는데, 그 사이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가?

-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200톤으로 종량제 봉투는 전량 소각 가능하나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 자원순환정책으로 두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1회용품 줄이기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5. 화재로 인한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구미시의 처분 계획은 무엇인가?
(민간 쓰레기 처리 업체의 경우와 대비하여)

- 민간처리업체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으나, 우리시 환경자원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으로 영업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은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환경자원화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정상화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은 필수적인 대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